

지역 소식통

고창 공동육아나눔터 '호음'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가 2019년 11월 개소 이후 일일돌봄, 상시돌봄, 돌봄품앗이, 공간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의 상시돌봄은 맞춤형가정 등의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체육, 놀이, 기초학습 등 다양한 발달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양육부담 경감과 어린이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 돌봄품앗이와 양육활동 등을 위한 편하고 쾌적한 공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 양육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는 신나는 놀이체육, 우물썰개, 과학교실, 문화체험 등 인기 프로그램을 총 110여 차례 진행 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만석보·고부천 유채꽃 '활짝'

정읍시 이평면 만석보와 고부면 고부천 제방에 유채꽃이 만발해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평면 만석보 일원에 조성된 유채꽃 단지는 18농가가 참여해 18.6ha에 이르는 유채군락을 조성했다. 고부면 고부천변에 조성된 유채꽃길은 지난 2021년부터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청년들이 힘을 모아 불법쓰레기 등으로 황폐화된 1km 구간 유채 등 경관작물을 직접 식재해 아름다운 천변길로 변모시켰다. 일반적인 유채군락 지역이지만 향기로운 꽃향기가 찾아오는 시민들의 오감을 충분히 자극하고 봄날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청년들은 봄에는 유채꽃, 여름에는 메밀꽃을 심으면서 작물을 수확해 얻은 소득을 기부까지 하는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스마트도시로 도약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스마트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10일 시에 따르면, 전남(지난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5년의 스마트도시로의 도약 추진 전략이 담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9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 이후 8개월간 지역 현황·환경 분석, 스마트도시 역량강화 교육, 관련부서 면담,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이번 중간 보고회에서는 그간의 추진 사항과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도출된 2개의 스마트

도시 서비스의 필요성, 주요 기능, 조성전략을 제시했다.

시 현안에 맞춰 설정된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면담과, 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운영단의 의견을 수렴해 도출된 것으로, 그간 행정 중심의 서비스 공급이라는 패러다임에서 시민의 관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시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

시는 내장산, 무성사 등 풍부한 환경·문화 자원과 광역교통인프라, 우수한 농업자원 등 강점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생활권 간 기초 인프라 격차 등 약점 요인을 보완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만의 특성에 부합하는 스마트도시 계획이 용역의 핵심"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은 중간보고 이후로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헬프데스크,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정읍형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관련 부서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부안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실행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및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추진

부안군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2024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전기 굴착기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20대 및 전기 굴착기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총 330백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장치 규격 기준으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및 전기굴착기 최대 2000만원을 투입하여 구매 보조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가능 조건은 부안군민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부수적으로 엔진교체는 배출가스 5등급

급 운행이 가능한 차량 중 Tier 1 이하의 엔진이 탑재된 노후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좀 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 게재된 '2024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해 사업접수는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군청 환경과로 방문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4 청년 성장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 ... '청년카페' 45세까지 확대 운영

정읍시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2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으로, 사회 초년생이 취업 초기 적응의 어려움 때문에 구직과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일명 '쉬었음 청년'으로 전환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청년카페'를 운영한다. 청년카페에서는 △경력 다시보기 △

마음 심리 검사 및 퍼스널컬러 진단 등 '나에 대해 바로 알기' △건강검진 및 스트레스 관리 △진로 컨설팅과 같은 '취업고민 탈출' △원데이 클래스 △식생활 개선 요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 관리자에게는 청년 진화 조직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신입직원이 조직에 수월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와 교육 수강

에 따른 비용은 전액 무료다.

신청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소기업기법법상 중소기업이다. 청년의 경우 모집인원에 따라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 45세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시 일자리정책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기업애로 제로화 도전

1기업 1담당제 추진

정읍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도 1기업 1담당제를 추진한다.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1기업 1담당제는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기업애로 전담 공무원을 퇴직까지 매칭해 기업애로 해소를 하면서 기업애로 해소를 도와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역 내 기업체 400여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기업애로 해소반을 운영해 즉각 애로해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관부서와의 협회 회의를 통해 기업애로사항에 대해 다방면으로 검토·처리한다.

더불어 기업체가 필요한 각종 기업지원시책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교류

의 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체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www.tok.kr)을 새롭게 시행해 기업 애로 전문상담 플랫폼을 제공하고, 기업 지원사업, 경영환경 정보 등을 실시간 제공하는 중소기업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1기업 1담당제 등 기업 맞춤형 시책을 추진해 기업유지에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기업 1담당제를 통해 접수된 기업 애로사항은 599건이었으며, 이중 542건(90%)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민원은 인력난, 운영자금 부족, 판로, 각종 기반시설 정비 등이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외교관 2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

고창군, 청소년외교관 29명 위촉식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9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국제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외교관 29명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외교관'은 고창군과 국제자매우호도시인 중국 조장시, 일본 시마노정, 말레이시아 미리시의 청소년들이 온·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행정간 교류에서 더 나아가 민간으로의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사업이다.

작년에는 중국 조장시와 태주시 2개 도시와 중국어로 교류를 진행했지만, 금년에는 고창군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간 교류 확대의 기회로 삼고자 중국어, 일본어,

영어를 사용하는 3개도시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날 진행된 위촉식은 고창고, 영선고, 고창북고 학생대표 3명의 합동 선서를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심덕섭 군수의 당부말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외교관으로 위촉된 학생들은 온라인 채팅, 오프라인 편지쓰기, 고창군 홍보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을 대표하는 청소년외교관으로서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데 새로운 전환점이 됐으면 한다"며, "각자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되길 기대하며, 청소년외교관으로서 고창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